

전남 서부권

“해남火電, 화원관광단지애 악영향”

지역상공인들, 민자유치 등 관광 개발 포기 우려 한목소리

해남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를 놓고 주민간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현재 3000억여원을 투입해 기반조성과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준공돼 운영중이다.

이 사업은 신해양시대에 대비한 서남권의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해 국가 균형발전과 전남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사업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민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지역내 찬반 논쟁이 관광단지 유치사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예정지역은 화원면 은덕리 일원 250만㎡로 관광단지 골프장 경계 북쪽으로 약 2km에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수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보아도 화력발전소는 고용인원 1500여명, 세입수입 190억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경우 총 고용 파급자수 4만9000여명, 부가가치 파급효과 7494억원(2005년 분석 결과)으로 화력발전소와 비교도 안 되는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재두루미>

완도 노화도에 노랑부리저어새·재두루미·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목포대, 법적 보호 조류 다수 발견

완도 노화도에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멸종위기종 2급)와 재두루미(멸종위기종 2급·천연기념물 203호), 큰고니(멸종위기종 2급·천연기념물 제210호) 등 법적보호 조류가 다수 발견됐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용)은 “무인도서 실태조사중 노화도 갯벌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1개체를 비롯해 재두루미 11개체, 큰고니 71개체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하당 신도심 4곳에 주차 빌딩 건립

목포시 민자유치 용역 실시

목포시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당 신도심 등 4개소에 주차빌딩을 건립한다.

목포시는 “상가, 아파트 밀집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현재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건립해 주차공간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늘부정 옆 등 4개소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중에 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부터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일원에 있는 남교주차장, 남교로 가변차로, 오거리문화센터 등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다도해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무료 시민대학 운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공원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대학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관리방향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서는 오는 3월 18일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dadohae.knps.or.kr)와 서부사무소에서 배부·접수한다.

시민대학은 다음달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5주간 진행되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문화 등에 관한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강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새얼굴

“고객 최우선 고품질 전력 안정 공급”

이동영 한전 목포지사장



“소통과 신뢰를 통한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취임한 이동영(55) 한국전력 목포지사장은 “목포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로 국제적 산업 물류 도시의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1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사업소인 만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끊임없는 고객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영 한전 목포지사장은 “소통과 신뢰를 통한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중국인 200여명이 전북 현대와 중국 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오며, 4월에는 노인 1000여명이 2박3일의 일정으로 찾을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에 중국 관광객 북적거릴 듯

전통문화 체험 나들이 수학여행 등 방문 약속

전주시에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다롄(大連)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은 지난 23일 전주를 방문해 오는 7월 전주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오겠다고 약속했다.

수학여행단은 7개 학교, 350여명이 될 전망이다. 이들 학교가 전주를 수학여행지로 정한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교장단은 학생들이 전주 한옥 마을의 경기전과 오목대를 둘러보고 한지뜨기와 같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중국인 200여명이 전북 현대와 중국 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오며, 4월에는 노인 1000여명이 2박3일의 일정으로 찾을 예정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점이 중국인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신세대 공감 ‘춘향축제’ 4월 개막

춘향제전 공동위원장에 이환주 시장·안숙선 명창

‘제82회 춘향제’가 오는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5일동안 남원 광한루일대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춘향제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남원출신 안숙선 명창과 이환주 시장을 공동위원장에 추대했다.

또 집행위원장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회장 출신인 최용택씨를 임명했다.

안숙선 공동 위원장은 “남원 출신으로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춘향제의 전통과 정체성을 살려 향토문화와 전통 예술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신세대와도 공감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취임이후 첫 번째 춘향제를 맞는 이환주 시장·안숙선 명창은 “춘향제가 지니고 있는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하지만, 답습적이고 획일적인 요소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축제관광 위원회를 신설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택 집행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신명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춘향제는 춘향 선발대회를 비롯해 ‘춘향시대 속으로’, ‘춘향골 낭만콘서트’ 등 50여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봄맞이 논·밭두렁 태우기

무주 국유림사무소는 지난 23일 불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대에서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에 대한 소각작업을 벌였다.

무주 국유림사무소는 “현재 4~5개 업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선택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격 조건을 완화해 희망 업체를 다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응도 종합리조트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토지매입비 213억원을 포함, 15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 곳에는 가족형 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비즈니스센터 등 관광휴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 비응도 종합리조트 건설 난항

사업 참여 업체 없어... 시, 조건 완화 재공고 검토

군산시가 비응도에 종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중이지만 국내외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4~5개 업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선택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격 조건을 완화해 희망 업체를 다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응도 종합리조트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토지매입비 213억원을 포함, 15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 곳에는 가족형 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비즈니스센터 등 관광휴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고교생 18명과 대학생 20명에게 총 58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4월에 예정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작업이 재공고 일정 등으로 인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4~5개 업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선택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격 조건을 완화해 희망 업체를 다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응도 종합리조트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토지매입비 213억원을 포함, 15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 곳에는 가족형 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비즈니스센터 등 관광휴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양해석 이사장은 “날마다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 없이 모두가 이루어진다(一勤天下無難事)”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물론 어질고 따뜻한 참사랑을 베푸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 주길”을 당부했다.

뉴스 브리핑

전주시 탄소공장 유치 성금으로 탄소공원 추진

전주시는 국내 첫 중성능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입주하는 팔복동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 단지에 ‘탄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탄소 공원은 토지주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를 맞았던 탄소공장의 조속한 착공을 기원하며 시민

이 낸 성금으로 만든다. 성금은 전주시내 31개 단체와 개인이 보내온 9300여만원이며, 전주시는 그동안 마땅한 용처를 찾지 못해 고민해왔다. 전주시는 구체적인 공원 규모와 위치 등은 추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청소년지원센터 진로탐색 지도자 워크숍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내 꿈은 내가 만든다’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센터는 상담 관련 학과 졸업자와 청소년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29일까지 교육 희망자 선착순 30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할 경우 삼성 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발급한 수료증을 받게 되며 관내 중, 고등학교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문의(063-468-2870)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개최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월 모임이 최근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렸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지역 마을만들기 활동 홍보 및 추진 내용의 공유와 자문을 통한 마을만들

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앞으로 정읍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민창안대회, 마을기업육성, 지역 자원조사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경찰 전·의경 의무위반 제로화 결의대회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지난 23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소속 전·의경들과 함께 전·의경 의무위반 제로(Zero)화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원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박민석 상경은 “대원 하나하나가 엄

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제경찰은 최근 3층 대강당에서 학교폭력처리 매뉴얼 활용과 4·11 총선관련 선거사무 신고접수시 단계별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